

KT, 스카이TV-미디어지니 합병

그룹 사업 재편 본격화... 12개 채널 '공용 MPP' 탄생

〈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

11월 1일 합병법인 공식 출범 예정 MPP 역량 집결... ENA 브랜드 강화 일각선 '지주형 회사' 전환 일환 관측

KT가 흩어져 있던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사업 재편은 시작했다. 1일 KT 그룹 내 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스카이라이프(Skylife)TV가 미디어지니와 합병안을 결의했다. 스카이라이프TV는 미디어지니와 합병을 통해 KT그룹 MPP 역량을 한데 모으고 ENA 브랜드 가치를 높여 '톱티어(Top Tier) MPP'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합병법인 11월 1일 출범

스카이라이프TV는 ENA 채널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편성을 일원화해 경영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단일 채널 법인으로서 전략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TV와 미디어지니의 합



KT 광화문 사옥 전경

/뉴시스

병법인은 1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합병은 스카이라이프TV가 미디어지니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법인의 지분은 KT스카이라이프가 62.7%, KT스튜디오지니가 37.3%씩 보유하게 된다. 향후 양사는 KT스카이라이프가 MPP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TV와 미디어지니 합병 법인은 지속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및 제작을 통해 ENA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룹사간 역할 갈등 인한 불확실성 해소

업계는 양사의 통합을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가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HCN을 인수할 때부터 미디어지니(구 현

대미디어) 인수 주체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KT스튜디오지니로 변경되면서 지분구조가 복잡해진 탓에 합병이 늦어진 것이다.

윤용필 스카이TV 대표가 지난해 10월 미디어지니가 출범할 당시 양사 대표이사직을 겸임해왔고, 지난 4월 그룹 미디어데이에서 KT그룹의 4개의 방송 채널이 ENA 브랜드로 재개국한 것을 봐도 이 같은 합병이 짐작 가능했다. 또 양사 공동 사무실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S시에 마련했는데, 미디어지니가 먼저 입주한 후 스카이TV는 지난 6월이 건물로 이사하면서 양사의 협업 터전이 마련됐다.

12개의 채널을 보유한 대형 PP가 탄생해 그동안 CJ ENM이 독주해온 PP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든 사업 방향은 기존에 발표한 브랜드 ENA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

해 ENA 채널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ENA를 운영 중인 KT스카이라이프는 연 매출 1조 클럽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은 KT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주형 회사 전환'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이고 미디어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 김철수 대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로서 스카이라이프TV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한 콘텐츠 투자와 더불어 그룹 내 콘텐츠 유통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는 '종합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중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 AI(인공지능)·IT를 활용한 후반 제작 등 새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대우조선해양, 친환경 예인선 개발 사업 선정

“무탄소 선박 상용화 시대 고삐”

해수부 주관... 235억 예산 투입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대우조선해양이 다양한 대체 연료 기술 개발로 미래 탄소중립 선박 시대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한국형 수소연료전지 예인선 개발사업의 추진업체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수소연료전지로 추진되는 친환경 예인선을 개발해 오는 2026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는 총 235억원의 개발 예산이 투입된다.

예인선은 연안이나 항구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선박을 밀거나 끌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운항 중인 예인선 대부분은 국제해사기구의 탄소배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축적한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대 3MW급 수소연료전지-배터리 하이



대우조선해양의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 설비

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선박에 적용하고 육지와 해상에서 실증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상남도 대형선박 무탄소 연료 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도 참여해 암모니아를 활용한 선박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기여하게 됐다”며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무탄소 선박 상용화 시대의 고삐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5G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사업 확장

사이버로지텍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가 5G 기반 스마트항만 솔루션 구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해운·물류IT 전문기업인 사이버로지텍과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유수홀딩스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스마트항만 솔루션 기술을 강화하고 5G 기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 IT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사이버로지텍과 업무협약을 결정했다. 사이버로지텍은 선사·터미널·물류산업 영역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도입,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결합해 국내외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양사는 초고속·초저지연성 뿐



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오른쪽)과 사이버로지텍 손정민 항만솔루션그룹장(왼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만 아니라 우수한 보안성을 갖춘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과 사이버로지텍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 시간 지연 없이 시각화된 항만 운영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운영자는 항만 운영 및 작업자 안전 관련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축적된 빅데이터로 위험요소를 예측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채윤정 기자

KT, 파트너사 상생 앞장 1249억 납품대금 조기지급

KT그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트너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KT는 1249억 원 규모의 파트너사 납품 대금을 오는 7일까지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사 추석 명절 대금 조기 지급에는 KT 알파, KT 커머스, KT D S, KT 엔지니어링, HCN, 이니텍 등 6개 계열사도 동참하며, 기존 예정일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지속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파트너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KT와 KT 계열사들이 총 1177억원, 올해 설에는 총 756억원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채윤정 기자

LGU+ '듀얼넘버 플러스'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eSIM(심) 상용화를 맞아 기본 요금제 외에 추가로 월 8800원을 부담하면 1대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듀얼넘버 플러스'를 1일 출시했다.

듀얼넘버 플러스는 USIM(유심)과 eSIM을 동시에 사용하는 Dual-SIM(듀얼심) 이용 고객을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e심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이용 중인 LG유플러스 고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듀얼넘버 플러스'에 가입하면 1개의 스마트폰에 두번째 번호(2nd)가 발급되며, 월 8800원에 250MB의 데이터(소진 시 QoS 400Kbps)와 첫번째 번호의 전화와 문자 사용량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카카오 디지털 마케팅 지원금 50억 돌파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1.7만명 달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카오의 디지털 마케팅 지원 금액이 한 달 만에 50억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지급한 금액이 8월 31일 기준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지원 금액을 수령한 소상공인 수는 약 1만 7000여 명이

달한다.

카카오의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단골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 활동이다. 국제청 신고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네이버제트, 태국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

태국 최대 통신사 트루 제휴

네이버제트가 태국 최대 통신사인 트루와 제휴를 통해 태국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네이버제트와 태국 최대 통신사 트루(TRUE)가 글로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손을 잡는다. 네이버제트는 지난 31일 XR시설을 겸비한 태국 방콕 트루하우스에서 강희석 네이버제트 리드, 비라톤 카센스리 트루 최고 전략적 콘텐츠 및 대외협력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페토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재 태국 내 제페토 사용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태국의 Z세대 사용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제페토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태국 이용자들이 50만 명 이상에 이른다.

특히 태국에도 많은 팬덤을 보유한 K-POP 콘텐츠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불가리의 글로벌 앰버서더이자 태국 출신 뮤지션 블랙핑크 리사가 제페토 불가리 월드에서 팬들과 셀카를 찍는 등 다양한 가상 이벤트를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채윤정 기자